

02

내가 생각하는 광주형 문화란?

박경동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 팀장
(사회학 박사수료)

2. 내가 생각하는 광주형 문화란?

‘광주형 문화’는 지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향하며,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신분, 소속,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들이다. 사적취미를 넘어 예술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예술을 통한 유대감 속에서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광주형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다.

1. ‘광주형 문화’ 익숙하지만 모호한 개념

‘광주’, ‘문화’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인데 비해 ‘광주문화’, ‘광주형 문화’는 익숙하지만 개념정의를 명확하지 않는 어휘이다. 이는 익숙한 단어의 결합일 뿐 개념에 대한 체계적 연구나 풍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문화’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이며 혼란스러운 단어라 그러할 것이다. 예컨대 ‘광주형 문화’는 광주지역에서 창작되고 유통되고 향유되는 문화 활동, 광주를 기반으로 형성된 학맥과 예맥의 작품들, 광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이벤트나 행사, 중앙 또는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독특한 사업이나 정책, 광주정신과 같은 일종의 집합심성 또는 지향해야 할 가치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광주형 문화’에 대한 시공간의 범위, 창작주체 선정기준, 창작활동의 결과와 내용물이 지닌 지역성 판별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익숙하고 진부하지만 모호하고 공백이 있는 이 개념들과 씨름해 보며 ‘광주형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일상 깊숙이 결합되어 있는 익숙한 연구대상을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낯설게 바라보며 현상을 이해하고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광주형 문화’를 낯설게 바라본다는 것은 경험을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매개된 경험으로, 지역을 주어진 것이 아닌 만들어진 그리고 여전히 구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 결국 ‘광주형 문화’는 고정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구성되는 헤게모니임을 전제로 한다. 문화의 실천적 의미를 이해하고 결과물을 구성하는 것은 서울 중심의 보편적 문화와 상대적 거리를 두고 지역문화가 가진 긍정적 의미를 드러내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보편성보다 차이와 이질성을 강조하고, 고정되고 박제화 된 고유성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존을 보여주는 의미가 될 것이다²⁾.

1) 박해광 외, 2012, 『지역문화와 문화정치』, 전남대출판부, 27쪽

2) 박해광 외, 2012, 『지역문화와 문화정치』, 전남대출판부, 28쪽

2. '광주형'에 대한 담론분석

'광주형'이란 단어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말한다는 것은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며 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동반하기 때문에 '광주형'이란 단어를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광주형'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빅카인즈 뉴스검색(<https://www.kinds.or.kr>)을 통해 '광주형' 개념의 용례와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은 빅카인즈에서 '광주형'이란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결과와 그것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약 4,600여건이 검색되었으며 중복되거나 주제에 벗어난 내용 등은 생략하고, 핵심메시지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빅카인즈 광주형 키워드 검색 및 주요내용 재구성

구분	건수	언론사	발언주체	발언장	발언 주요내용
1996	1	전남일보	오준성 교수	시민환경 생활축제	광주형 폐기물재활용처리시스템 개발돼야..
2006	1	전남일보	광주미술협회 박지택 회장	인터뷰	광주형 랜드마크를 꼭 조성해주길 당부..
2008	2	전남일보	이민원 교수	토론회	광주형 기업·일자리·수요 창출을 비롯해... 향후 비전을 제시
2009	1	광주일보	광주시건축주택과장	기고문	광주형 미래주거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0	10	전남일보	이용섭 후보	보도자료	지역 특성에 맞는 광주형 사회적 기업 육성 강조
		전남일보	남구청장 정재훈 후보	보도자료	남구에 광주형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전남일보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혁신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
2011	7	무등일보	-	보도자료	(주)대농산업은 광주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지난 12일 현판식을가졌다.
		광주매일	서정훈 광주 NGO센터장	기고문	광주형 민·관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장 광주형 여성친화 마을 공동체 모델
2012	8	광주매일	광주미협회장 정순이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쇼셜디자인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미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사)광주협동조합 연구소 소장	세미나 발제문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광주형 협동조합 5가지 유형을 제시
2013	28	광주일보	강운태시장	인터뷰	광주형 행복 복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광주매일	광주자치행정국장	기고문	'광주형 행복 복지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의견 수렴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시가 '광주형 행복 복지모델'을 마련 3일 발표했다.

구분	건수	언론사	발언주체	발언장	발언 주요내용
2014	56	아시아경제	광주광역시	사업설명회	광주형 임대아파트 건립추진 계획과 연계
		전남일보	강운태시장	출마선언	광주형 생명구제를 구체화한 '시민자치복지도시 광주'..제시했다
		전남일보	광주발전연구원장	보도자료	협약을 통해 광주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
		아시아경제	양형일 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육아공동체 모델을 구축
		광주매일	윤장현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제시
		전남일보	윤봉근 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창의·혁신학교 운영
		국민일보	윤장현 당선자	인터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
2015	138	무등일보	장휘국 교육감	보도자료	광주형 자유학기제, 중학교 전면 시행
		전남일보	광주도시공사사장	보도자료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의 해법을 찾겠다
		전남일보	참여혁신단	보도자료	광주형 마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5월부터 광주형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광주매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
		광주일보	광주여성재단	보도자료	세대공감 광주형 여성정책 발굴
		전남일보	문재인대표	간담회	광주시청에서 광주형일자리 간담회 개최
		무등일보	노사민정협의회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의제로 채택, 집중 논의
		광주매일	세계청년축제공제준비 단장 강수훈	인터뷰	일상성의 광주형 청년축제를 만들고 싶다
2016	236	아시아경제	윤장현시장	인터뷰	광주형 직장맘지원센터'설립
		광주매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광주형 도시환경 구축
		무등일보	광주문화재단	보도자료	광주 문화예술의 나무를 키워가는 광주형 메세나
		무등일보	서정성후보	보도자료	효율적인 광주형 치매서비스망 구축
		아시아경제	이용빈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
		한겨레	기획재정부장관	기자간담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적극지원
2017	371	서울경제	윤장현시장	보도자료	금호타이어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동참
		무등일보	광주문화재단	보도자료	광주형 문화예술사업의 안착 및 브랜드화
		광주매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개강
		광주일보	문재인후보	연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
		광주매일	윤형선 센터장	보도자료	광주형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
		무등일보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은 가운데..
		광주매일	LG경제연구원	현지조사	광주형 일자리 현지조사..박병규 단장과 면담
2018	1478	광주일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이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 후... 전국지자체의 벤치마킹 이어져
		아시아경제	이용섭당선인	당선소감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
		국제신문	현대차노조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참여 방침 철회
		매일경제	청와대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서울신문	이용섭시장	인터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노동계 불참, 매우안타깝다
		한국경제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타결...내일 최종안 공동결의할 듯
MBC	MBC	보도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저지 파업돌입		

구분	건수	언론사	발언주체	발언장	발언 주요내용
2019	1497	YTN	문재인대통령	신년회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척도
		전남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될 경우... 지원예산 충분
		조선일보	현대차노조	입장문	광주형 일자리 추진보다 군산공장을 재가동 해야
		한겨레	한겨레	사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30일 최종 타결
		경향신문	문재인대통령	연설문	광주형 일자리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
		머니투데이	현대차노조	입장문	광주형 일자리 철회위해 3년간 총력투쟁
		무등일보	광주상의	기자간담회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 확보에 협력
		광주일보	광주은행장	인터뷰	광주은행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한다
		전남일보	이용섭시장	기자회견	'광주완성차공장' 합작법인 7월 설립
		무등일보	송갑석 의원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0	768	KBS	KBS	보도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식
		서울경제	한노총	기자회견	"광주형 일자리 협약파기" 선언
		매일경제	현대차노조	입장문	"광주형 일자리서 손 빠라"...
		국민일보	광주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에서도 드문 사회적 실험
		광주일보	이용섭시장	보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해법..청와대 지원 요청
		세계일보	세계일보	보도	노동계 복귀... '광주형 일자리' 재시동
		광주매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는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경력직 53명 추가 채용
광주매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7개사 인증서 수여		

‘광주형’이란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건수는 총 4,600여 건이고 이를 다시 연도, 건수, 언론사, 발언주체, 발언장소, 주요내용 등으로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특징적인 것은 ‘광주형’의 개념과 내용이 시기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3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는 ‘광주형’이 언급된 1996년부터 2014년까지로 ‘광주형’이란 개념이 명확하진 않지만 ‘광주에서 만들어진’, ‘광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주를 대표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된 시기이다. ‘광주형’은 학계나 문화계 인사, 건축 및 복지 관련자 등 시민사회 진영에서 활동하는 이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고, 선거 후보자의 공약으로 구체화되었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당선자의 정책으로 안착되는 특징을 보인다.

제2기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로 ‘광주형’의 개념이 체계화되어 시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여기서 ‘광주형’은 ‘광주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정책’, ‘새로운 민·관 협치모델’과 같은 지역의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윤장현 시장이 당선되며 정책공약이 교육, 문화, 도시환경, 시민사회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발언의 주체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정치인 등이 ‘광주형’을 주로 언급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확장되었고, 대권주자 및 유력 정치인이 ‘광주형 일자리’를 호명하게 된다.

제3기는 2018년에서 현재까지로 '광주형'의 대부분이 '광주형 일자리'로 집중된 시기이다. 윤희현 시장이 퇴임하면서 다방면에서 진행되었던 '광주형' 정책은 퇴장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지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활용되었고, 발원자 역시 대통령, 당대표, 중앙부처 관료, 현대차 노조, 한국노총 등으로 확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 촛불이 되었고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경제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노사간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광주완성차 공장 설립이란 소중한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은 쉽지 않아 현재도 갈등은 봉합과 표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광주형 문화' 사례와 특성

'광주형'은 최초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며 탄생한 개념으로 이후 정치인의 공약, 시정부의 정책사업, 정부 국정과제 등으로 용례가 확대되었다. 특히 초기 개념이 '광주에서 만들어진' 혹은 '광주의 특성을 대표하는' 단순한 의미에서 '광주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정책', '새로운 민·관협치 및 혁신모델'과 같은 의미로 확장되었고, 이후 5월 광주정신과 결합되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배담론으로 활용되었다. '광주형'을 통해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협치를 이뤄내고, 광주란 도시의 매력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문화 분야에서 '광주형'의 용례와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광주형 일자리'처럼 '새로운 민·관협치 및 혁신모델'과 같은 긍정적 의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목표를 향해 일사분란하고 고분고분하게 움직이는 방식은 문화 분야에선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기존의 가치와 통념에 대한 처절한 부정, 주류에 대한 체질적 거부와 사회 비판적 성향은 문화예술계의 특징이자 존립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적 특성 혹은 예술가의 기질은 '광주형'의 특징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광주형 문화'는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고,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 나는 여기서 무등산 풍경소리와 세월호 상주모임에서 연대활동을 보여준 예술가의 사례를 통해 '광주형 문화'의 가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무등산 풍경소리

무등산 풍경소리는 2002년 증심사 주지였던 일천스님이 제안했고 석장 스님(문빈정사), 임의진 목사(강진 남녘교회), 김인주(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운동본부장), 오자섭(생명나눔실천회 상임이사), 박문옥(가수) 등이 기획한 이야기와 노래로 꾸며지는 음악회이다.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대표 전영 신부)'으로 노래 속에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

고, 종교 간의 화합을 노래했다. 2002년 7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1차례씩 증심사 특설무대와 성당, 교회, 원불교 교당 등에서 번갈아 열렸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사회자, 영상촬영, 진행, 섭외 모두 무료봉사로 이뤄졌고 200명의 고정 관객들이 왔으며, 증심사는 저녁 무료공양으로 대접했다³⁾.

2) 세월호 광주상주모임과 5·18 민주대성회의 예술가 연대활동

‘세월호 3년 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만든 모임으로 구성원은 30~40대 부모들, 20대 청년, 10대 청소년 등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다. 처음 5개 마을이 연대하고 여기에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예술인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19개의 마을촛불이 들불처럼 생겨났다. ‘진실 마중 사람띠잇기 퍼포먼스’,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 ‘세월호 진실나무 프로젝트’, 광주·전남지역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팽목항 기억의 조형물’, ‘길 위에서 희망을 묻다’라는 주제강연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빛고을 1,000일 순례도 진행했다⁴⁾.

2014년 5·18 34주년 기념식은 취소되었다.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에 항의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추모 분위기 동참 차원에서 5·18 34주년 기념행사 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5월 17일 민주대성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를 뜻하는 304개의 꽃그림 영정을 앞세워 ‘5·18 민주대행진’을 벌였다. 40분에 걸쳐 304개 꽃그림 영정을 무대 배경으로 맞이했고, 윤진철 명창의 국악 공연과 광주지역 연극인들은 34년 전 시민군을 재현하는 극을 올렸으며, 가수 김원중의 ‘직녀에게’ 등 공연이 이어졌다⁵⁾.

위의 사례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경험인 아닌 매개된 경험으로, 박제화 된 문화행사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존을 드러냄으로써 ‘광주형 문화’의 특성을 재구성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무등산 풍경소리는 생명과 환경이라는 인류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종교적 신분, 예술적 장르의 벽을 넘어 공존과 연대의 장을 열었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었다. 이를 기획한 것은 종교계와 예술계 등 시민사회 단체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힘이었으며, 부족한 예산은 자원봉사와 시민모금으로 충당되었다. 당시 사회자였던 최명진 목사는 “문화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편의 선택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을 순환시켜 생명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낸다. 이것이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며 풍경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라고 했다.

3) <https://bud1080.tistory.com/1997> [불교타임즈]의 내용을 발췌

4) 전남일보, 2014년 10월 20일자 <명망가 아닌 자발적 개인들 주도...생활문화형 운동> 및 <http://cafe.daum.net/lifepeace21>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발췌

5) 민중의 소리, 2014년 5월 18일자, <5.18민주대성회 금남로서 1만명 모여 “박근혜는 물러나라” 외쳐> 발췌

두 번째 세월호 상주모임과 2014년 5·18 민주대성회 때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연대했던 활동도 특이하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 등 모든 것을 내놓으며 함께 행동하는 모습들. 5·18 전야제 취소로 행사 지원금이 없기에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와 출연료를 지역예술가들이 각출하며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심전심으로 나누는 행동들. 물론 다른 지역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과 기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기획을 연대행동과 사회적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광주는 연대와 실천이 실제로 가능한 도시다. 결국 문화예술은 단순히 대중의 즐거움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산업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다⁶⁾. 이러한 명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광주이고 이런 것이 '광주형 문화'라 감히 말하고 싶다.

4. 내가 생각하는 '광주형 문화'

광주는 예향으로 불리어왔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예향의 근원과 뿌리를 가사문화와 소치-미산-남농-의재로 이어지는 남중화 전통, 임방울로 대표되는 남도 국악으로 정의하며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식한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창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지정 등을 통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라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공간적으로 광주란 지역에서 생산되고, 광주에서 활동한 인물과 계보에 의해 창작되고, 타 지역에 없는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행사를 '광주형 문화'라고 말하면 타당할까?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만으로 '광주형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광주형 문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향해야 하며,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신분, 소속,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활동들로 정의하고 싶다. 지역민의 삶의 애환을 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한 행위, 그러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대하는 것. 무등산 풍경소리, 세월호 상주모임과 5·18 민주성회에서 보여준 예술가들의 연대방식이 '광주형 문화'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궁극적으로 '광주형 문화'는 사적취미를 넘어 예술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예술을 통한 유대감 속에서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 나는 이것이 광주형 문화정책의 궁극적 지향이라 생각한다.

6) 김석현 외, 2018,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위즈덤하우스.